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325-361
<https://doi.org/10.29212/mh.2023..129.32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 전기 전라우수영의 설치와 위치 변화 연구*

박세나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목 차
1. 머리말
 2. 조선 전기 수군의 창설과 전라우영의 설치
 3. 전라우수영의 위치 변화와 입지 조건
 4. 맺음말

초 록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수군은 육군과 별도의 지휘 체계가 아닌
일원화되어 있었다. 조선이 건국되고 수군은 육군과는 독립된 병종으로
창설되었다. 조선 조정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바로 수군을 창설한 배
경을 살펴보면 왜구를 빼놓을 수 없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바다를 통한 외적의 침입은 항상 있었지만 1350년(충정왕
2)부터 왜구의 침입 성격이 변화하였다. ‘경인의 왜구’라고 불리는 1350년
이후의 왜구는 대규모화하기 시작하였고, 고려는 왜구의 침입에 속수무책
으로 당하였다.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왜구 방비를 위해 수군을 독

* 본 논문은 국립목포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립된 병종으로서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군선 건조에 역점을 두었다. 조선 조정은 수군액 확보와 군선이 신속히 출항할 수 있는 정박 거점을 찾는 등 왜구 대응책 마련에 힘썼다.

전라도는 왜구 침입 경로에 있고 물산이 풍부하여 잦은 침입을 당하였다. 조선 전기 서해로 출몰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전라수영이 옥구현(현 군산시)에 설치되었다. 옥구는 바다와 만나는 접경에 있어 수상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수군진의 입지로는 최적지였다.

왜구의 활동이 태종대 급증하자 조정은 병선을 배치하기 위해 정박하기 적당한 곳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옥구는 전라도 전 지역을 방어할 때 너무 위쪽에 있는 것이 문제였다. 서남해안으로 침입해오는 왜구를 막기에 한계가 있어 전라수영은 옥구에서 무안현 대굴포로 이설한다. 무안현 대굴포 전라수영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은폐하기 좋고, 해변으로 진입하는 왜선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극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대에 병선을 깊은 곳에 두면서 병선 배치 지역을 확대하려다 보니 병선과 수군의 증강액이 끝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병선의 경계 범위와 작전 반경, 기동성을 높여 병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수동적인 거점 방어에서 공격적인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이었다. 공격적인 방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남해안을 지키는 전라수영의 이설이 필요했다. 이 당시에 해안 안쪽으로 설치된 군사 거점을 밖으로 끌어내는 전환은 전국 곳곳에 보이는 군사 전략의 특징이다. 전라수영도 내륙에 있던 대굴포에서 바닷가에 인접한 해남 황원곳으로 이설한다.

해남 황원곳에 정착한 전라수영은 사랑진왜변·을묘왜변 등 빈번한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우수영과 좌수영으로 분리하게 된다.

수군진의 이설과 편제 변화는 왜구의 성격과 관련이 있으며, 전라우수영도 왜구의 이동로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서남해안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전라우수영은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몇 차례의 이설 과정을 겪었다. 전라우수영의 위치 변화를 통해 당시의 해상 방어 전략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주제어 : 전라우수영, 전라수영, 수군진, 수군, 전라우수사, 왜구, 전라도

1. 머리말

조선의 수군은 왜구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설치되었다. 여말선초 이래로 왜구는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까지 침탈하였고, 이러한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은 요해처에 主鎮·巨鎮·諸鎮을 설치하였다. 주진은 수군절도사가 파견된 곳을 말하며, 주진 아래에 첨절제사가 파견되는 곳을 거진이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제진이라 하여 만호가 파견되었다. 이 중에서 수군절도사가 파견된 수영은 주진으로서 산하 제진을 총지휘하여 왜구를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방어 체계는 전라도에도 확장되었는데, 서남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전라우영이 설치되었다. 본래 전라우영은 단일 조직으로 서남해안으로 침입해오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설을 거쳐 세종 22년(1440) 해남 황원곶에 자리 잡았다. 또 순천 내례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종 10년(1479)에 전라좌수영이 설치되자, 전라우영은 전라좌·우수영으로 분리되었다. 이때부터 전라우수영은 고종 32년(1895)에 廢營될 때까지 약 450여 년 동안 전라도 서남해 도서 연안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수군과 수군진, 해상 방어 체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수군에 동원된 군역 문제, 조직 체계 정비, 왜구 방어를 위한 시설과 훈련, 지휘 체계 등이 다뤄졌다.¹⁾ 수군 관련 연구는 일일이 다 열거할

1) 조선 전기 수군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논지가 참고된다.

강남석, 「여말선초의 수군정비와 대왜구 활동에 대한 소고」,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개별 수군진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²⁾ 반면, 전라우수영에 대한 연구는 전라우수영 산하 제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면서 전라우수영을 주진으로만 언급하거나 혹은 유적지에 대한 기초 조사가 검토된 정도이다. 전라우수영은 서남해안을 방어하였던 수군 최고의 지휘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조선 전기 독립된 병종으로서 수군이 창설되고, 이 속에서 전라우수영이 설치되는 과정과 위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의 해상 방어 정책과 전라우수영의 특성을 단면적으로나마 이해하고자 한다.

위논문, 1986 ; 김위현, 「선초의 수군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 김재근, 「조선왕조의 수군」, 『해양전략』 5, 해군사관학교, 1981 ; 방상현, 「浦鎮의 정비와 海防體制의 확립」,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 이재룡, 「조선전기의 수군」, 『한국사연구』 5, 한국사연구회, 1970 ; 장학근,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최석남, 『한국수군사연구』, 명양사, 1964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韓國研究叢書』 46, 한국연구원, 1983 ;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사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 오봉근,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1998 ; 이민웅, 「제5장 해상방어체제의 정비와 수군」, 『한국군사사 5-조선전기 1』, 경인문화사, 2012 ; 이재룡, 「朝鮮前期의 水軍-軍役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5, 1970 ; 임용한,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군사』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 차문섭, 『조선시대군제연구』, 단국대출판부, 1973 ; 한성일, 「조선 전기 수군의 지역별 동원 실태와 운영」, 『역사와 경계』, 경남사학회, 2019.

2) 각 지역 수군진에 대한 사례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주식, 「전라도 서해안의 수군 유적지에 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31, 해군사관학교해군해양연구소 ; 남호현, 「고려말~조선전기 수군의 창설과 경기지역 수군진의 특성」, 『해양문화재』 제18호, 2023 ; 송은일, 「조선전기 고흥지역 수군진 설치와 수군 동향」, 『역사학연구』 64, 호남사학회, 2016 ; 신운호,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수군의 편제 및 운용 연구」,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2018 ; 신재덕, 「충청수영에 관한 연구」, 『대보문화』 2, 대보문화연구회, 1992 ; 이호주, 「鰲川水營의 기능변화에 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강길, 「조선후기의 충청병영과 수영」,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황의천, 「朝鮮時代 忠淸水營과 屬鎮의 위치에 대한 고찰」, 『보령문화』 16, 2007.

2. 조선 전기 수군의 창설과 전라수영의 설치

가. 조선 전기 수군 창설과 해상 방어 체제 정비

고려시대까지 수군은 육군과 별도의 지휘 체계가 아닌 일원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후 수군은 독립된 병종으로 창설되었다. 조선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바로 수군을 창설한 배경을 살펴보면 왜구의 위협을 빼놓을 수 없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바다를 통한 외적의 침입은 항상 있었지만 1350년(충정왕 2)부터 왜구의 침구 성격이 변화하였다. ‘경인의 왜구’라고 불리는 1350년 이후의 왜구는 대규모화하기 시작하였고, 고려는 왜구의 침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다. 고려의 수군은 대규모로 몰려오는 왜구를 감당할 만큼 육성되어 있지 않았고, 시급히 수군을 양성해야 했지만, 흥건적의 침공을 비롯한 거듭되는 전쟁으로 인해 이를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

근래 왜구가 강역을 침범해 성상께 밤낮으로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 지금 계획은 두 가지에 지나지 않으니, 육지에서 지키는 것과 바다에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 육지만 지키고 바다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가 겁을 먹었다고 여겨 쉴 수 없을 만큼 나타날 경우 그 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지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굳게 하는 것이며, 바다에서 싸우는 것은 저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것이니, 이와 같다면 둘 다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³⁾

앞의 글은 1352년(공민왕 원년) 이색이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려의 수군은 왜구를 감당할 만큼 육성되어 있지 않아 해상 방어를 포기하고 육상 방어에 치중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왜구는 전에 비해 큰 규모와 잦은 빈도로 고려왕조를 위협하였고, 고려왕조가 수군 독립 문제를 논의한 것은 한층 격심해진 왜구의 침입과 관련이 있다. 독립된 병종으로서 수군의 필요성을 최초로 역설한 이 주장은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왜구의 증가로 인해 그 의미가 부각되었다.

고려는 전 해역에 걸친 해상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병선과 수군이 필요했다. 대규모 수군의 육성을 위해서는 수군의 편제 방식과 육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군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조가 이러한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본격적인 해상 방어 체제는 조선으로 넘어가게 된다.⁴⁾

조선 초기 수군의 정확한 설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태조실록에서 水軍都節制使⁵⁾ · 水軍僉節制使⁶⁾가 태조 2년(1393) · 3년(1394)에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태조 초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수군 편제는 수군도절제사 · 수군첨절제사의 휘하에 만호(3품 이하), 천호(4품 이상), 백호(5품 이상) 등을 두었으나, 태종 13년(1413)에 만호(4품), 부만호(4품), 천호(5품), 부천호(6품)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백호는 사라졌다.⁷⁾ 세종 2년(1420)에는 수군도절제사가 수군도안무처치사로 개칭되었으며,

3) 『高麗史』 권115, 「열전」 28, 諸臣, 이색.

4) 남호현, 「고려말~조선 전기 수군의 창설과 경기지역 수군진의 특성」, 『해양문화재』 18, 2023, 166쪽.

5) 『太祖實錄』 卷3, 太祖 2年 3月 19日.

6) 『太祖實錄』 卷3, 太祖 3年 2月 13日.

7) 『太宗實錄』 卷26, 太宗 13年 7月 9日.

세종 25년(1443)에는 3·4품을 만호로, 5·6품을 천호로 개칭하였다.⁸⁾

이와 같이 정비된 수군의 편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다음의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수군의 편제

道名	編制		
京畿道	水軍僉節制使 2員	×	萬戶 4員
忠淸道	水軍都按撫處置使 1員	都萬戶 2員	萬戶 5員
慶尙道	水軍都按撫處置使 2員	都萬戶 2員	萬戶 17員
全羅道	水軍處置使 1員	都萬戶 2員	萬戶 13員
黃海道	水軍僉節制使 1員	×	萬戶 6員
江原道	×	×	萬戶 6員
平安道	水軍僉節制使 3員	×	×
咸吉道	×	×	萬戶 2員

* 출처: 『세종실록지리지』

위의 표를 보면, 지역에 따라 관직명 및 배속 인원의 수가 다르게 배정되는 등,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배치된 수군의 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왜적의 침입이 잦았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은 수군도안무처치사와 도만호, 만호가 많이 배치되었다.

고려·조선왕조가 해상 방어 전략을 수립할 때 치명적인 약점은 선제공격과 기습의 주도권을 왜구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수군을 해안선 곳곳에 배치하면 병력이 분산되고, 병력을 집중시

8) 정청주,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순천대학교 박물관, 1993.

키면 방어가 허술한 지역이 발생한다. 왜구는 이 약점을 노려 병력이 분산되면 각개격파를 하고, 병력을 집중하면 빈 곳을 노렸다.⁹⁾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왜구 방비를 위해 수군을 독립된 병종으로 정비하면서 군선 건조에도 주력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말 왜구와의 전쟁을 몸소 경험하여 “국가에서 근심하는 것이 왜적보다 심한 것이 없다.”고 언급하며¹⁰⁾, 왜구 토벌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태조가 구상한 해방 전략의 기본적인 틀은 왜구의 침입을 연해상에서 ‘군선과 수군’으로 격퇴하는 것이었다.¹¹⁾ 태조~세종대에는 병선 건조와 수군액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태종은 태조의 해방 전략을 계승하여 군선 185척을 추가 건조하도록 하고¹²⁾, 군선이 신속히 출항할 수 있는 정박 거점을 찾는 등 왜구 대응책 마련에 힘썼다.¹³⁾

조선 초기 수군은 왜구와의 海戰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군이 성장하는데 큰 사건이 발생한다. 세종 1년(1419)에 ‘기해동정’을 강행한 것이다. 원거리 대규모 해상 정벌의 경험은 수군의 전반적인 역량의 성장을 가져다주었다. 당시 대마도 정벌에는 삼도도체찰사 이종무 지휘하에 군선 227척(경기 10척, 충청도 32척, 전라도 59척, 경상도 126척), 수군 17,285명이 동원되었다.¹⁴⁾ ‘기해동정’ 이후 조선은 倭船보다 빠른 선속과 내구성을 갖기 위해 군선의 성능을 개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험, 개량

9) 임용한,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군사』 72, 2009, 71쪽.

10) 『太祖實錄』 卷3, 太祖 2年 5月 7日.

11) 민장원, 「조선시대 서해안 해방전략과 충청도 태안의 전략적 위상 변화」, 『역사와 담론』 제105집, 2023, 43쪽.

12) 『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3月 21日.

13) 『太宗實錄』 卷25, 太宗 14年 8月 7日.

14) 『世宗實錄』 卷4, 世宗 1年 6月 17日.

했다. 동시에 군선을 의해나 수로 상에 전진 배치하고, 전투 효율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였다.¹⁵⁾ 이를 계기로 조선 수군은 왜구에 대항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세종 연간의 전투에서는 대개 조선 수군이 왜선을 추격하여 공격·나포했다.¹⁶⁾

해방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수군은 황폐화된 연해 지역을 복구하고, 수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군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해상 방어를 위한 조치로서 수군에게 둔전을 운영하게 하였고, 魚鹽之利를 보장해줘 연해 지역의 방어 효과를 높였다.¹⁷⁾ 한편, 수군의 천역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海領職을 설치하는 등 고역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¹⁸⁾ 수군과 병선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수군의 비율은 양계지방을 제외하면, 6도 지방군의 70%에 달하였으며, 병선은 전라도의 경우 1408년(태종 8) 81척에서 1425년(세종 7) 221척까지 늘어났다.¹⁹⁾

수군이 해방 전략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조세 수취의 방법이 陸運에서 漕運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왜구의 잦은 침구로 삼남지방의 조세를 한동안 육로로 운송하였다. 엄청난 교통의 발달을 이룬 지금도 많은 화물은 바다로 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금과 교통의 상황이 비교도 되지 않던 당시를 생각해보면 육운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1401년(태종 1) 다시 조운으로 전환하고, 수군에게 조운선을 호송하는

15) 민장원, 「병선(兵船) 운영을 통해 본 조선 세종대 해양방어 전략전술」, 『해양과 인문학』, 2022, 94~107쪽.

16) 『世宗實錄』卷22, 世宗 5年 10月 3日 ;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9月 20日 ; 『世宗實錄』卷26, 世宗 6年 11月 7日 ; 『世宗實錄』卷27, 世宗 7年 3月 7日 ; 『世宗實錄』卷42, 世宗 10年 10月 16日 ; 『世宗實錄』卷64, 世宗 16年 4月 21日.

17) 윤훈표, 「여말선초 군제개혁연구」, 해안, 2000, 264쪽.

18) 노영구, 「조선초기 수군과 해령직의 변화」, 『韓國史論』33, 1995, 27쪽.

19) 임용한, 위의 논문, 2009, 81쪽.

임무를 맡겼다.²⁰⁾ 조선 초기 수군은 연해 지역을 개간하고, 개혁을 단행하며 해안 지역 군현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고려 말부터 세종 이전에 개설한 수군진은 주로 해변의 주요 군현에 설치되었고, 이곳을 기반으로 주변의 요충에 병선을 배치하였다. 수군진의 설치 시기와 위치 변화를 밝히는 것은 당시 해방의 전략 정책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조선의 해방 전략 속에서 서남해안을 守禦한 전라우수영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나. 전라우수영의 설치

경상도와 전라도는 왜구 침입 경로에 있고 물산이 풍부하여 잦은 침구를 당하였다. 조선 전기 서해로 출몰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전라우수영이 옥구현(현 군산시)에 설치되었다. 전라우수영은 전라도 인근의 浦鎭을 지휘하여 왜적을 방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라도수군도절제사(全羅道水軍都節制使)가 사의(事宜) 두어 조목을 올렸다.…옥구(沃溝)의 수영(水營)은 해로(海路)의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진수(鎭戍)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읍건대, 수영(水營)을 모두 옥구진(沃溝鎭)에 붙이고, 해도(海島)의 중앙인 무안현(務安縣)의 대굴포(大幅浦)로 수영을 옮기소서.…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으나, 오직 수영(水營)을 옮기자는 일절(一節)만은 도관찰사에게 내려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²¹⁾

20) 『太宗實錄』 卷2, 太宗 1年 8月 2日.

21) 『太祖實錄』 卷16, 太祖 8年 12月 24日.

전라수영의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전라도 수군도절제사가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올린 조목에서 ‘옥구의 전라수영’을 확인할 수 있다. 옥구는 일찍이 지리적 이점과 전략적 위치로 수군진이 설치되었다. 조선 태조 초, 要害가 되는 연안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鎭이 설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옥구였다. 다음은 태조 때의 수군 편제 내용이다.

각도의 병마도절제사를 파하고 各鎭의 첨절제사를 두어 소속 부근 고을의 병마를 거느려 守禦에 대비하고, 도관찰사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게 하였다. 경상도는 4鎭인데, 함포·강주·영해·동래이고, 전라도의 4진은 목포·조양·옥구·홍덕이고, 충청도의 3진은 순성·남포·이산이고, 풍해도의 2진은 풍주·웅진이고, 강원도의 2진은 삼척·간성이다.²²⁾

위의 사료에서 보듯이, 태조 6년(1397)에 병마도절제사를 폐지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파견하였다. 당시 설치된 진은 모두 15개소에 달하며, 전라도에는 목포, 조양(현 보성), 옥구, 홍덕에 첨절제사가 배치되었다. 조선 초기 병선 배치 지역과 육·수군의 주둔지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²³⁾ 鎭은 해안의 요충지에 설치되어 왜구들이 해상에서 육지로 상륙할 경우 격퇴하거나, 浦에 배치된 수군과 협공 작전을 수행하였다.²⁴⁾ 이때의 수군진은 내륙·연안 지역 방어에 주력하였다.²⁵⁾

22) 『太祖實錄』卷11, 太祖 6年 5月 21日.

23) 『世宗實錄』卷60, 世宗 15年 6月 27日.

24) 국방군사연구소, 『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1993, 184쪽.

25) 민현구,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의 확립」, 『한국군제사-근세조선시대편』, 1968, 11쪽.

전라수영이 옥구에 입지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 1>이 참고된다.

<그림 1> (1872년 지방도)(옥구현)



* 출처 : 서울대 규장각 소장

위의 <그림 1>은 1872년 옥구현 일대를 그린 지방도로, 옥구의 지리적 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옥구현은 오늘날 전북 군산시 시내와 옥구읍, 옥서면, 옥산면, 회현면 일대에 해당하며, 금강과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들어가 바다와 만나는 접경에 위치하고 있다. 위의 지도에서 보건대 조운선과 상선의 해로가 옥구현과 주변의 섬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어, 수상 교통의 중심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도 북쪽에 있는 七邑捧稅漕倉은 옥구의

지정학적 위치를 부각시켜주는데, 옥구·전주·태인·금구·임실·진안·장수 등의 7개 고을 조세를 모아 서울 京倉으로 보냈던 곳이다.²⁶⁾ 이렇듯 옥구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조운제도의 중심 기능을 유지하였다.

또한, 옥구현 서쪽 해상에는 다수의 섬들이 위치하고 있다. 서쪽부터 살펴보면, 煙島, 大竹島, 小竹島, 內草島, 入耳島, 加乃島, 箕食島, 駕島, 明嶼島, 飛鷹島, 萬頃古群山, 夜味島, 界火島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섬들은 조운선들이 정박하면서 바람을 기다렸던 곳으로, 옥구를 호위하듯 입지하여 방어의 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서쪽의 箕食島는 삼남지방의 세곡선이 모이는 곳으로 섬 안은 평온하여 바람을 피할 수 있어서 관방의 요충지였다. 이 밖에 동서남북으로는 舒川浦·石浦·臨陂西浦·楮田浦 등이 있고, 군사시설로는 臨陂新滄津·花山烽臺 등이 있다. 이러한 지리적·군사적 중요성으로 미루어 보아, 옥구는 당시 浦鎭의 입지 조건과 일맥상통한데, 세종 때의 황해도 경차관 黃埜의 啓文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海州 槌串에 머무르고 있는 병선을 無知串으로 이박시키는데 대한 편의 여부를 신 등이 살펴보니, 무지관은 해중의 섬들이 바라보이어 진실로 요해지가 되기는 하오나, 동남쪽이 모두 큰 바다이며, 돌도 많고 바람도 심하여 병선을 간직해 두는 곳으로는 마땅치 않고, 오직 퇴관 서쪽 1백 보쯤 되는 곳에 한 浦口가 병선을 모아 머무르게 할 만하였습니다.… 存伊浦도 역시 방어상 가장 긴요한 곳이기도 하오나, 물과 샘이 없고, 또 큰 바다가 환히 통해 보이어 은폐할 곳이 없어, 소수의 병선이 정박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다만 阿郎浦는 태양이 바라보이

26) 1872년 지방도, 옥구현조 해제(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면서 포구 안에 바람도 잠잠하여 병선을 정박시킬 만하오
니...27)

앞의 사료에서 보건대, 병선 주둔지로 적합한 浦鎮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예컨대 浦鎮의 조건은 ① 바람이 없는 곳, ② 방어상 은폐할 수 있는 곳, ③ 선박이 자유롭게 정박할 수 있는 곳, ④ 물과 샘이 풍부한 곳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전라도 옥구현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병선 주둔지로 적합했다. 특히 섬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바람이 없고, 방어상 은폐하기에 적합하며,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여 조운선이 자유롭게 정박하기에 용이했다.

3. 전라우수영의 위치 변화와 입지 조건

가. 옥구현에서 무안현 대골포로 이설

왜구의 활동이 태종 6년(1406)과 8년(1408)에 또 다시 급증하자 태종은 병선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정박하기 적당한 곳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해방 전략 전술에서 정박 위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투 선박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해전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²⁸⁾ 이러한 상황에서 옥구에 설치되었던 전라우수영은 ‘전라도’ 해상을 방어하는 데 한계점이 드러난다. 옥구는 전라도 전 지역을 방어

27) 『世宗實錄』 卷27, 世宗 7年 2月 25日.

28) 민장원, 「조선 세종시대 병선의 해방 전략·전술」, 『STRATEGY』 21, 2018, 199쪽.

할 때 너무 위쪽에 있는 것이 문제였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 왜구의 침입이 남해안 일대를 급습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남해 지역에 대한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라우영을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 전기 왜구 침입 사례를 살펴보면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²⁹⁾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던 태종대(1401~1418) 지역별 침입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선 태종대 왜구 침입 지역

연대	왜구 침입 지역
1401	見乃梁(거제) · 紫燕島(인천) · 三木島(인천) · 高灣梁(보령) · 固城縣(고성)
1402	釜山浦(부산) · 仙佐島(남양) · 興德(고창)
1403	羽溪縣(강릉) · 長鬢(포항) · 樊溪浦(고성) · 豆毛浦(부산) · 甘北浦(경상도) · 樂安浦(벌교)
1404	제주 · 南陽(경기도) · 安行梁(충청도) · 영광
1406	장흥부 · 제주 · 乃而浦(진해) · 巖臺島(인천) · 三木島(인천) · 安行梁(충청도) · 小知島(인천) · 楸子島(제주)
1407	三陟府(삼척) · 목포 · 紫葱島(경기도) · 耽津(강진) · 興德(고창) · 楮島(통영)
1408	兆陽鎮(보성) · 巖臺島(신안) · 靈光郡(영광) · 충청수영 · 結城(충청도) · 唐津(충청도) · 沔州(충청도) · 鋤近梁(서천) · 倉浦(마산) · 長淵(황해도) · 楸子島(제주) · 加羅島(경상도) · 會寧縣(장흥) · 光陽縣(광양) · 寧朔縣(평안도)
1409	欲知島(동영) · 仙山島(완도) · 제주 · 洪州(충청도) · 長淵(황해도)
1415	제주
1417	于山島(독도)

29) 나종우, 『한국중세 대일교섭사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211쪽.

위의 <표 1>의 지역별 침입 횟수를 살펴보면 전라도가 19회로 가장 많고, 경상도 12회, 충청도 9회, 경기도 8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청도는 수영이 약탈당할 정도였다.³⁰⁾ 이러한 상황은 조선의 군사적인 방어책의 강화로 이어졌다.³¹⁾ 그 결과 韓雍으로 하여금 충청·전라도의 監戰敬差官을 삼아 왜구를 방지하고³²⁾, 安瑗을 東·西江 등의 병마도절제사 겸 수군절제사로 삼았으며, 대호군 李培를 助戰僉節制使로 삼아 감사 1백 명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보강하였다.³³⁾ 결국 서남해 전역으로 침입해오는 왜구로 인해 전라수영의 이설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태종 8년(1408)에 전라도 수군도절제사가 왜적을 방어하기 위해 올린 조목에서 확인된다.³⁴⁾ 전라도 수군도절제사가 옥구의 수영을 무안현의 대굴포로 옮기자고 건의한 것이다. 옥구는 해로의 중앙이 아니라는 이유로 鎭戍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海島의 중앙인 무안현의 대굴포로 수영을 옮기자고 주장했다.

대굴포는 강어귀에 위치해 내륙수로 연결되는 곳이다. 내륙으로 들어간 지역은 은폐 효과가 크고, 해변으로 진입하는 왜선을 파악하기에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방어 태세로 해석될 수 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대체로 수륙의 방어는 국경을 굳게 지키고 멀리 나가는 것을 힘쓰지 아니하면, 공을 세우려다 백성을 상하게 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옵니다. 국가에서 처

30) 『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3月 6日.

31) 태조대에 잠시 주춤했던 왜구들이 태종대에는 적극적인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그 피해가 적지 않자, 태종은 내륙과 해안의 군사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제도를 재정비하여 적극적인 해방 전략을 펼쳤다.

32) 『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5月 14日.

33) 『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5月 17日.

34) 『太宗實錄』 卷16, 太宗 8年 12月 24日.

음 병선을 만들어 요해지에 정박하게 하고자 함은 寇賊를 막을 뿐이요, 바다 밖까지 멀리 쫓으라는 명령은 없었사운데,…”³⁵⁾

위 기사에서 처음 병선을 만들었을 때 요해지에 정박해서 왜구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고, 바다로 추격하라는 명령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해방 전략은 병선을 내륙 중심으로 배치하여 주요 군현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³⁶⁾ 세종대 까지도 해안 가까운 곳에서는 병선이나 수비군의 보호가 미치지 않아 수백 결의 가경지를 두고도 주민이 경작하지 못하는 곳도 존재하였다.³⁷⁾ 이런 사정이다 보니 군진이나 읍치도 내륙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³⁸⁾

전라수영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대굴포는 현재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수영과 관련된 지명이 현전한다.³⁹⁾ 즉 선박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水統幕, 동쪽의 초소였다는 東幕, 외래객을 맞이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賓亭, 마을 사람들이 糧倉·창골·창등이라 부르는 江所倉·船所倉 등이 있다.

무안현 대굴포는 지리적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그림 2>를 통해 살펴보자.⁴⁰⁾

35) 『世宗實錄』卷83, 世宗 20年 10月 1日.

36) 민장원, 위의 논문, 2018, 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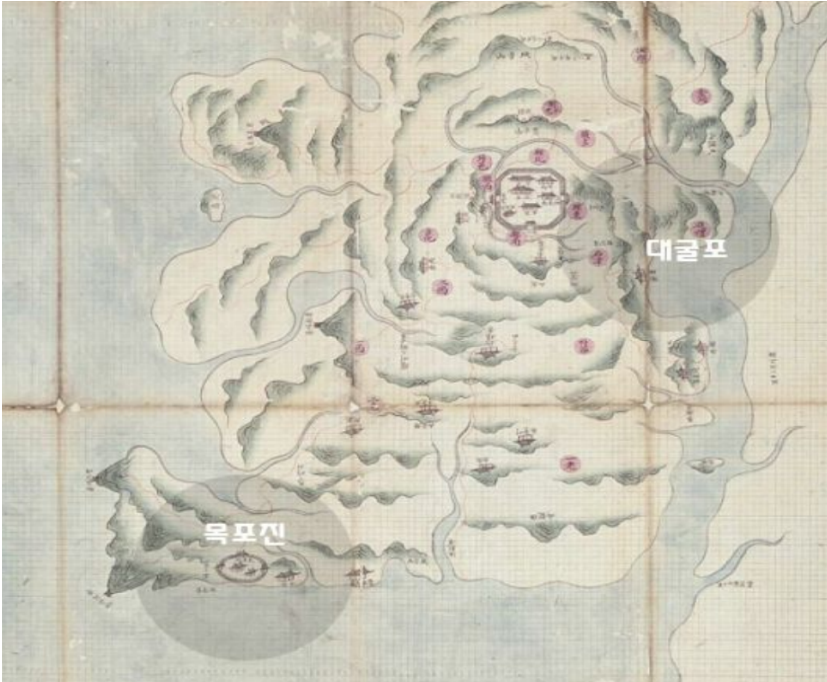
37) 『世宗實錄』卷60, 世宗 15年 6月 27日.

38) 『世宗實錄』卷88, 世宗 22年 3月 11日.

3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전라도』 함평군편, 1983.

40) 『備邊司印 方眼地圖』 「호남지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 1745~1765.

〈그림 2〉『備邊司印 方眼地圖』「호남지도」



* 출처 :『備邊司印 方眼地圖』「호남지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 1745~1765

위의 〈그림 2〉에서 보건대, 대굴포는 조운선의 발진 포구 기능을 하였던 沙湖津, 그 아래로 영산강을 따라 東倉과 船所, 전라수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굴포 일대는 영산강 하구언이 건설되기 이전까지 조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지역이다. 이런 까닭에 일찍이 수상 교통로가 발달하였고, 내륙과 해안이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이었다. 또한 대굴포는 서남해로부터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영산강에 접해있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입지를 제공하여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가졌다.

나. 무안현 대굴포에서 목포로 이설 논의

병선 이동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병선의 배치 변화는 세종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라수영의 이설 논의도 제기된다. 세종 11년(1429) 전라감사가 대굴포의 지리적 여건을 이유로 병선을 蘭梁(현 해남군 화산면 연곡리)으로 옮길 것을 건의한다.

전라감사가 계하기를, “이번에 수군처치사와 함께 蛇梁의 병선을 獨臺梁으로 옮겨 정박시키는 것의 여부를 살펴보니, 독대량에 배를 정박시키는 것은 쉽지만 왜적이 들어오는 첫 어귀가 아니므로 혹여 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 제때에 쫓아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그전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처치사의 병선이 정박해 있는 대굴포는 배를 대는 곳이 깊고 멀 뿐만 아니라, 포구도 좁고 굽어서 이 또한 때에 맞게 응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청하건대 처치사로 하여금 영의 병선은 蘭梁으로, 난량의 병선은 達梁으로, 달량의 것은 마량으로, 마량의 것은 회령포로, 회령포의 것은 녹도로, 녹도의 것은 축두로, 축두의 것은 사랑으로 옮기고 사랑의 병선은 변란에 대응할 수 있는 요해지 여도로 옮겨 정박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병조에 내려보내게 하였다.⁴¹⁾

대굴포는 배를 정박하는 곳이 깊고 멀뿐만 아니라, 포구도 좁고 굽어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후 세종 14년(1432)에 前 制摠 李恪이 대굴포 전라수영의 단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목포로 이설할 것을 강조하였다.

41) 『世宗實錄』 卷44, 世宗 11年 4月 12日.

前 制摠 李恪이 상서하기를, “전함을 두어 요해지를 지키는 것은 변방을 튼튼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어 해상과 육상의 방어책이 모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처치사의 군영 가운데 목포 만호가 지키는 곳이 포구에 있는데도 바다까지 거의 2식경이나 되는 대굴포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출입할 때도 조수를 두 번이나 꺾어야 하고 만약 바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하루 이틀 안에 바다에 이를 수조차 없으니, 혹시 변고가 생긴다면 어찌 제때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처치사의 병선은 모두 단단하고 빠르며 그 수효 또한 각 浦의 것보다 배나 되는데, 늘 포구에 깊숙이 정박해 두어 쉽사리 출입할 수가 없게 된다면 장차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⁴²⁾

위의 啓文에서 보듯이, 대굴포가 목포만호의 포구로부터 무려 2식경, 즉 60리(23.5km) 정도 떨어져 있고 조수가 급변하여 선박의 출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산강은 간만의 차가 커서 조수 때 넓은 갯벌이 드러나 작은 배만 겨우 수로를 타고 운항할 수 있었다.⁴³⁾ 또 하루에 간조를 두 번이나 꺾어야 하고, 바람이 불 때는 하루 이틀 안에 바다로 나갈 수 없었다. 이러한 입지적 특징으로 대굴포는 해안 방어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도순찰사 정흠지로 하여 금 이설 장소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⁴⁾ 다음은 도순찰사 정흠지의 보고 내용이다.

42) 『世宗實錄』 卷57, 世宗 14年 8月 5日.

43)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함평 대굴포 전라수영』, 무들, 2003, 37쪽.

44) 『世宗實錄』 卷57, 世宗 14年 9月 9日.

- a-1. 都巡察使 資憲 刑曹判書 鄭欽之와 從事官 朝奉副 知 敦寧府事 겸 宗親府典籤 閔恭이 移營址를 살피는 일로 9월 나주에 왔다가 21일에 발행하여 진도·황원·토주 등지를 돌아본 후 30일에 나주로 돌아왔다가 상경하였다.⁴⁵⁾
- a-2. 전라도 도순찰사 정흠지가 아뢰기를, “본도의 수영을 목포에 옮겨 설치하고, 목포의 병선을 황원의 남면 周梁에 옮겨 碇泊하게 하고, 珍島의 西面 蘇可浦에 수영의 병선 3, 4척을 매달 운번으로 세워 정박하여 수호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이를 의정부·諸曹·三軍都鎭撫에 명을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아뢰 바에 따르심이 옳겠나이다.” 하므로, 그대로 좃았다.⁴⁶⁾

세종대에 병선을 깊은 곳에 두면서 병선 배치 지역을 확대하려다 보니 병선과 수군의 증강액이 끝이 없었다. 당시 병선이 거의 3배로 늘었다고 하지만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⁴⁷⁾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병선의 경계 범위와 작전 반경, 기동성을 향상시켜 병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수동적인 거점 방어에서 공격적인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수군의 꾸준한 노력으로 향상된 전력과 왜구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가능한 전략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⁴⁸⁾

45) 『錦城日記』 宣德 7년 壬子, 世宗大王 14年.

46) 『世宗實錄』 卷58, 世宗 14年 10月 20日.

47) 『世宗實錄』 卷86, 世宗 21年 9月 2日.

48) 임용한, 위의 논문, 2009, 85쪽.

다. 해남 황원곶으로의 이설

공격적인 방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남해안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전라수영의 이설이 필요했다. 공격적인 방어 전략을 위해 강어귀 깊은 곳이 아닌 전라수영을 비롯한 여러 수군진과 병영을 해안가에 설치하였다.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나타난 군사 전략의 특징 중 하나로, 해안 안쪽에 설치된 군사 거점을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전환을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전라수영은 대굴포에서 바닷가에 인접한 해남 황원곶으로 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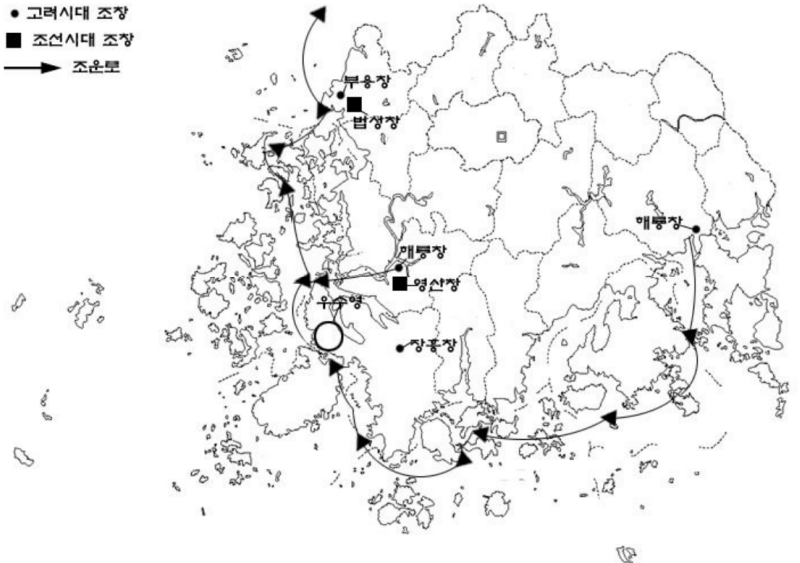
전라수영이 이설된 해남 황원곶(현 해남군 문내면 일원)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황원곶은 한반도의 서남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또 황원곶 주변으로 여러 섬이 분포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대동여지도』 「전라우수영의 입지」(1861년)



앞의 <그림 3>에서 보듯이 해남 인근 해역에 우악도, 죽도, 골도, 양도, 고도, 송도, 감배도, 징이도, 부소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입지하고 있다. 또 진도와는 鳴梁項⁴⁹⁾이라는 해로를 마주 보고 있다. 해남과 진도 사이를 통과하는 명량항은 통일신라 이래로 이용된 중국과 일본의 교역로였다.⁵⁰⁾ 또한 조운로 상의 해로이기도 하였다.

<그림 4> 고려·조선시대의 조창·조운로



* 출처 : 『고려사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조창과 조운로를 표시한 것이다.

- 49) 대동여지도를 보면 전라우수영과 진도 사이의 바다에 鳴梁項 이 표시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울돌목' 이라고 한다. 밀물과 썰물 때 물의 흐름이 홍수 때의 하천보다도 더 빨라져 직접 가서 들으면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이다.
- 50) 통일신라 말 장보고의 청해진과 당시 국제포구였던 구림의 상대포에서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닷길이 이용되었다. 즉 청해진을 출발하여 해남반도를 따라 가다 울돌목을 지나고, 여기에서 북상하여 회원반도 땅끝과 달리도 사이의 해협('대나리목')을 지나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구림의 상대포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강봉룡, 「고대 한·중 항로와 흑산도」, 『2009 국제학술대회 - 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2009, 49쪽.

앞의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라우수영은 순천에서 부용창까지의 중간 기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영남과 개경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해로로 사용되어왔으며, 각종 세곡을 개경 등지로 운반하는 조운로로도 활용되었다. 결국, 해남과 진도 사이의 이 해로에 위치한 황원곶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된다. 이 위치는 선조 31년(1598)의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둬 중요성을 입증하게 된다.

세종대 새로운 공격적인 해방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로 나타난다. 왜구의 통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수군진을 적의 시야로부터 은폐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이가 작고, 바다가 깊어 항상 배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주변 군진과의 거리, 포구의 폭 등도 고려사항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전라우수영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해남 황원곶에 안착하게 되었다.

해남 황원곶은 수군진의 입지로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전라우수영 포구는 현재의 남상리와 서하리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주목된다.

첫째, 갯벌이 아니라 평평한 갯바위로 형성되어 있다. 둘째, 좁은 해협에 형성된 울돌목이 있다.⁵¹⁾ 울돌목은 ‘鳴梁’ 또는 ‘울돌목’이라고 불리며, 이 지역의 물길은 潮流가 빠른 곳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물길을 지나는 선박은 조류가 발생할 때에는 待潮港으로 대피하였다. 셋째, 전라우수영 앞에는 ‘羊島’라는 섬이 있어 울돌목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물살이 빠른 울돌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우수영이 황원곶에 설치된 이유 중 하나는 羊島라는 섬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우수영 포구 내

51) 그 중요성은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15일 벽파진에서 우수영으로 진을 옮긴 뒤 장병들에게 좁은 수로를 막아 싸우려 한다는 전술을 설명한 뒤 “一夫當逕 足懼千夫”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의 조류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선박이 정박하기에 적합하였다. 그 결과 전라우수영의 포구는 많은 배들의 피항처가 되었다. 이는 다음의 <그림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망루에서 본 전라우수영의 포구 모습



위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전라우수영 포구는 L자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많은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 6>을 통해 해남의 입지와 주변 환경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림 6〉 해로에서 본 전라우수영의 입지 환경



위의 〈그림 6〉은 진도와 전라우수영 사이의 해로를 따라 살펴본 것이다. ①번 사진은 영암에서 해남 방면으로 향할 때 양도로 인해 우수영 포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③번 사진도 마찬가지로 양도와 길게 늘어진 육지면이 합해져 하나로 연결된 육지로 보일 정도인데, 이는 지형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②번 사진의 경우 울돌목을 지나야 우수영 포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지형적인 장애물을 통해 전라우수영이 위치한

곳이 천혜의 요새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라우수영이 설치된 해남 황원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떠했을까? 바로 전라우수영은 전라도 해로상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이는 다음 사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b-1. 東萊의 南乃浦에서 光陽에 이르기까지는 서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약간 돌아서 남쪽으로 가며, 順天의 서쪽에서 海南에 이르기까지는 서남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뺨치어서 간다.⁵²⁾
- b-2. 海南 鳴洋의 서쪽에서부터 扶安에 이르기까지는 북쪽을 향하여 가다가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지고, 萬頃에서부터 瑞山에 이르기까지는 북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뺨어나가 서산에서부터 동쪽을 향하다가 꺾어져 돌아서...⁵³⁾

위의 사료에 의하면 남해와 서해의 분기점이 해남이라는 사실은 황원곶이 전라도 해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통제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해와 서해의 해로를 통제하면서, 전략적인 위치에서 적절한 방어 및 통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종대 새로운 방어 전략을 펼치고자 할 때 이 지역을 선택한 합리적인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해남 황원곶은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전라우수영이 입지한 화원반도는 해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토지가 분포한 곳으로, 경지 면적이 완도군의 전체 경지 면적보다 넓다. 또 魚鹽 생산이 풍부하고, 주변 임야에서 딸감 채취가

52) 『增補文獻備考』 권32, 여지고20, 관방8, 海防, 남해의 해안편.

53) 『增補文獻備考』 권33, 여지고21, 관방9, 海防, 서해의 해안편.

용이하였다.

이외에 전라수영의 해남 이설은 군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수군이 육군과 별개의 병종임에도 불구하고 세종 21년(1439)에 수륙군이 협공하여 왜적의 침입에 대처해야 한다는 추세였다.⁵⁴⁾ 이는 수군과 육군의 방어 전략에서 구체화되었다. 또한 조선 전기의 군사 체제가 진관체제로 정비되고 수륙군과 연해·내륙을 한데 묶는 방어 체제로 개편되었다.⁵⁵⁾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전라수영이 육군과 수군의 합동작전이 가능한 해남으로 이설되었다. 다시 말해서 병영이 있던 강진과 가까웠던 해남의 지리적인 위치는 수군과 육군이 합동 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해남 황원에 정착한 전라수영은 성종 10년(1479)에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는 순천부 내례포(현 여수시)에 전라좌수영이 추가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남 황원곶의 전라수영은 전라우수영으로 분립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남 황원곶은 육군과 대굴포가 가지고 있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곳이었다. 즉 전라도 해로의 중간에 있으며, 포구에 갯벌이 없고, 조수가 발생하지 않아 선박이 정박하기 용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울돌목은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양도의 입지는 수영을 은폐하기에 중요했고, 그 결과 해남 황원곶은 수영이 입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전라수영은 몇 차례 이설 논의가 있었지만, 고종 32년(1895)에 병영과 수영이廢營될 때까지 서남해안을 지키는 수군 최고 지휘부로 활약하게 되었다.

54) 『世宗實錄』卷85, 世宗 21年 6月 16日.

55)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67쪽.

4. 맺음말

이상으로 전라우수영의 설치 과정과 위치 변화를 통해 수군진의 입지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왜구 방비를 위해 수군을 독립된 병종으로 창설하고 법제적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방어 체계를 수립하였다. 수군진은 해변의 주요 군현에 설치하고,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주변의 요충지에 병선을 배치하였다. 그 결과 각 연해 지역의 요충지에 주진·거진·제진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방어를 강화하고, 전라우수영은 이 중 주진으로서 서해안 방어를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라우수영의 설치 과정을 살펴보면, 옥구에서 출발하여 대굴포, 그리고 황원곶으로 이동하면서 입지 조건을 개선해 나갔다. 최초 설치된 장소는 옥구현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지역은 바다와 접해있어 수상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조운선과 상선이 지나가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정박이 용이하고 바람이 적어 은폐하기 쉬운 지형으로, 수군진의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였다.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던 태종대 지역별 침입 횟수를 살펴보면 서남해안이 가장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구에 설치되었던 전라우수영은 서남해로 침입해오는 적을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전라우수영은 옥구에서 무안현 대굴포로 이설하게 된다.

대굴포는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바다로 침입해오는 왜구에 대해 효율적으로 방어하기에는 불리한 지형이었다. 대굴포는 강어귀에 위치해 내륙수로

로 연결되는 곳이다. 내륙으로 들어간 지역은 은폐 효과가 크고, 해변으로 진입하는 왜선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방어 태세로 보여진다. 조선 초기의 해방 전략은 병선이 경계와 방어에 치중했기 때문에 만 안쪽 깊은 곳에 병선을 배치하였다.

세종대에 병선을 깊은 곳에 두면서 병선 배치 지역을 확대하려다 보니 병선과 수군의 증강액이 끝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병선의 경계 범위와 작전 반경, 기동성을 높여 병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수동적인 거점 방어에서 공격적인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이었다. 공격적인 방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남해안을 지키는 전라수영의 이설이 필요했다. 서남해안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강어귀 깊은 곳이 아닌 전라수영을 비롯한 수군진과 병영을 해안가로 옮겨 설치하였다. 이 당시에 해안 안쪽으로 설치된 군사 거점을 밖으로 끌어내는 전환은 전국 곳곳에 보이는 군사 전략의 특징이다. 전라수영도 내륙에 있던 대굴포에서 바닷가에 인접한 해남 황원곶으로 이설된 것이다.

해남 황원곶의 입지 환경은 전라도 해로의 중앙에 있으며, 포구에 갯벌이 없어 선박이 정박하기에 용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울돌목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인 장애물이었다. 특히 우수영 앞에 입지한 양도라는 섬은 수영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해남 황원곶은 수영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해남 황원곶에 정착한 전라수영은 사랑진왜변·을묘왜변 등 빈번한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우수영과 좌수영으로 분립하게 된다. 당시 전라도 순천부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따라서 조정은 남해안 지역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내레포에 전라좌수영

을 설치하고, 반면 황원곶을 전라우수영으로 편제하였다. 그 결과 전라좌·우도수군절도사가 각각 전라좌·우도의 수군을 각각 통솔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즉, 수군진의 이설과 편제 변화는 왜구의 성격과 관련이 있으며, 전라우수영도 왜구의 이동로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서남해안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전라우수영은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몇 차례의 이설 과정을 겪었다. 전라우수영의 위치 변화를 통해 당시의 해상 방어 전략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錦城日記』

『全羅右水營誌』

『增補文獻備考』

『湖南鎮誌』

2. 단행본

국방군사연구소, 『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1993.

<http://www.uci.or.kr/G500:1310377-00000000124824>

나종우, 『한국중세 대일교섭사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함평 대굴포 전라수영』, 무돌, 2003.

명지대학교, 『전라우수영 망해루지 및 복문지 발굴조사 보고서』, 해남군, 2004.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http://www.uci.or.kr/G701:B-00047867238>

윤훈표, 『여말선초 군제개혁연구』, 혜안, 2000.

차문섭, 『조선시대군제연구』, 단대출판부, 1973.

<http://www.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05990516>

차용걸, 『고려말·조선전기 대왜 관방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1988.

3. 논문

강봉룡, “고대 한·중 항로와 흑산도”, 『2009국제학술대회 - 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2009.

<http://www.uci.or.kr/G704-001430.2009..20.008>

국방군사연구소, “浦鎭의 정비와 海防體制의 확립”,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김주식, “전라도 서해안의 수군 유적지에 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31, 해군사관학교해군해양연구소, 2003

남호현, “고려 말~조선 전기 수군의 창설과 경기지역 수군진의 특성”, 『해양문화재』 1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3.

노영구, “조선초기 수군과 해령직의 변화”, 『韓國史論』 33, 서울대학교, 1995.

민장원, “조선시대 서해안 해방전략과 충청도 태안의 전략적 위상 변화”, 『역사와 담론』 제105집, 호서사학회, 2023.

민장원, “병선(兵船) 운영을 통해 본 조선 세종대 해양방어 전략전술”, 『해양과 인문학』, 글로벌콘텐츠, 2022.

민장원, “조선 세종시대 병선의 해방 전략·전술”, 『STRATEGY』 2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8.

민현구,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의 확립”, 『한국군제사-근세조선시대편』, 육군본부, 1968.

방상현, “朝鮮初期水軍의 鎭管體制로의 改編”, 『韓國軍事史論文選集』, 국방군사연구소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의 ‘선소’ 연구”, 『군사』 제105호, 국방부, 2017.

신윤호, “조선 초기 전라우도 수군진 설치 및 연혁 검토”, 『역사와 실학』 79, 역사실학회, 2022.

신윤호, “임진왜란 시기 전라도수군의 편제와 운용”, 『歷史學研究』 제72집, 호남사학회, 2018.

이재룡, “조선전기의 수군”, 『한국사연구』 5, 한국사연구회, 1970.

- 이현석, “15세기초 전라수영 대굴포의 위치”, 『향토사연구』 1,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89.
- 임용한,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군사』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http://www.uci.or.kr/G704-001528.2009..72.007>
- 장학근,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7.
- 장학근, “임란기 선조의 전략사고와 수군의 입장”, 『사학지』 28, 단국사학회, 1995.
- 정진술, “이순신과 전라우수사 이억기”, 『이순신연구논총』 제38집,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3.
- 조원래, “임란초기 해전의 실상과 조선수군의 전력”, 『조선시대사학보』 29, 조선시대사학회, 2004.
<http://www.uci.or.kr/G704-000303.2004..29.002>
- 정청주,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순천대학교 박물관, 1993.
- 최영창, “조선초기의 수군과 수군역”,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한성일, “조선 전기 수군의 지역별 동원 실태와 운영”, 『역가와 경계』 111, 경남사학회, 2019.
- 한성일, “16세기 중·후반 연해 군현의 戰船 배치와 운용”, 『지역과 역사』 42, 부경역사연구소, 2018.
<http://doi.org/10.19120/cy.2018.4.42.229>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Location Changes of the Jeolla Usuyeong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Park Se-Na

Before and during the Goryeo Dynasty, naval forces were unified with the army and did not have a separate command structure. Howev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the naval forces were created as an independent branch of the military. When examining the background of why the Joseon government, shortly after its founding, established the naval forces as a separate military branch, one cannot ignore the threat of foreign invasions, particularly from Japanese pirates known as 'Waegeu.'

The Korean Peninsula,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due to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had always been vulnerable to external invasions via the sea. However, the nature of Japanese pirate invasions changed significantly after 1350 (the reign of King Chungjeong). After 1350, the 'Waegeu of Gyeongin' started to organize on a larger scale, and Goryeo was defenseless against their raids. In response, the Joseon Dynasty not only established the naval forces as an independent branch to counter the Waegeu threat but also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naval vessels. The Joseon government made efforts to create a strategic plan for dealing with the Waegeu threa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aval bases and dockyards to ensure rapid deployment of naval forces.

Jeolla Province was located along the route of Japanese pirate invasions and was frequently targeted due to its abundant maritime resources. To prevent the incursions of Japanese pirates into the western sea, Jeolla Suyeong (naval command) was established in Okguhyeon (present-day Gunsan). Okgu was strategically located at the juncture of the sea and was an ideal position for naval transportation.

As Japanese pirate activities increased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the central government began searching for a suitable location to station military ships. Okgu's location at the northernmost part of Jeolla Province created a problem in defending the southwestern coast against pirate incursions. Therefore, Jeolla Suyeong was relocated from Okgu to Daegulpo in Muanhyeon, Muanhyeon, deep in the inland, had the advantage of being concealed and able to easily detect Japanese pirate ships entering the coastline, but it could only provide passive defense.

To address the issue of the endless expansion of naval forces and the placement of military ships in remote areas, the solution wa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naval forces by enhancing the boundaries, operational range, and mobility of the naval forces. In other words, there was a shift from passive defense to an aggressive defense strategy. To implement this aggressive defense strategy, it was necessary to relocate Jeolla Suyeong, which was tasked with defending the southwestern coast. During this period, there was a trend of relocating military bases located inland to coastal areas, which was seen throughout the country. Jeolla Suyeong also moved from Daegulpo, which was located inland, to Hwangwongot in Haenam, adjacent to the coast.

Upon settling in Hwangwongot, Jeolla Suyeong was divided into Usuyeong (Right Naval Command) and Jwasuyeong (Left Naval Command) due to frequent Japanese pirate invasions such as the Saryangjin Incident and Eulmyo Incident.

The relocation and organizational changes in the naval forces were related to the nature of the Waegeu threat, and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in Jeolla Usuyeong based on the movement of Waegeu. Understanding the shifting positions of Jeolla Usuyeong allows u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maritime defense strategies during that time.

Keywords : Jeolla Usuyeong (Right Naval Command of Jeolla),
Jeolla Suyeong (Naval Command of Jeolla), naval base,
navy, Jeolla Ususa (Right Naval Commander of Jeolla),
Japanese pirates, and Jeolla-do

